

우리나라의 消費者들은 世界에서 가장 비싼 挥發油를 쓰고 있다.

—大韓石油協會·弘報室—

世界自動車燃料油價格比較

(单位: \$/ℓ)

	揮發油	輕油	LPG
美 国	0.32	0.31	—
캐나다	0.35	0.35	—
오스트리아	0.62	0.57	0.35
프랑스	0.62	0.48	—
그리스	0.59	0.29	—
이탈리아	0.78	0.38	0.48
네덜란드	0.59	0.42	0.31
노르웨이	0.70	0.40	—
스페인	0.65	0.37	—
스웨덴	0.56	0.35	—
터키	0.52	0.32	—
英國	0.61	0.58	0.45
西獨	0.52	0.49	—
藻洲	0.37	0.36	0.19
뉴질랜드	0.46	0.38	0.28
日本	0.70	0.48	0.33
韓國	高級1.11 普通0.83	低硫黃油0.36 輕油0.35	프로판0.47 부탄0.46
아르헨티나	0.18	0.10	—
브라질	0.41	0.25	—
이집트	0.20	0.07	—
印度	0.60	0.31	—
인도네시아	0.33	0.15	—
쿠웨이트	0.14	0.14	—
말레이지아	0.45	0.20	—
말레이타	0.58	0.36	—
나이지리아	0.30	0.17	—
필리핀	0.52	0.31	—
사우디아라비아	0.06	0.02	—
싱가포르	0.53	0.32	—
남아프리카	0.58	0.59	—
소련	0.43	0.59	—
中 共	0.32	0.24	—

우리 나라消費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挥發油를 사서 쓰고 있다.

최근 美國의 에틸社가 발간한 International Petroleum Refining News Digest 최신호에 따르면, 挥發油가격은 產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가 ℓ당 6센트로 가장 싸고, 美國은 32센트, 西獨 52센트, 英國 61센트, 프랑스 62센트, 일본 70센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高級揮發油 1달러 11센트, 普通휘발유 83센트로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挥發油값이 외국에 비해 크게 비싼 것은 현재 휘발유에 100%의 特別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해 2월 6일 国内油價 조정시 휘발유에 부과되는 特別소비세율을 종전의 130%에서 100%로 인하했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다.

한편 輕油가격은 역시 產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가 ℓ당 2센트로 가장 싸고, 美國은 31센트, 프랑스와 日本이 각각 48센트, 西獨 49센트, 英國 58센트이며, 우리나라 輕油 35센트, 低硫黃油 36센트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油價구조는 석유제품이 連產品이므로 유종별 製造原価는 同一함에도 불구하고 유종별가격은 原価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내 油種別수급 連產品인 석유제품중 일부 油種의 수급불균형의 해소와 수출입원활화를 감안한 국제가격구조와 산업정책 및 民生安定의 고려등을 복합적으로 반영, 결정되고 있다.